

국내입양 정책의 현황과 방향

권 지 성 (침례신학대학교)

1. 여는 글

이 글의 목적은 국내입양 정책과 실무, 연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먼저 국내입양과 관련된 환경 변화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후에 국내입양 정책과 실무, 연구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검토하고 앞으로 이러한 영역들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 그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을 전개하기 전에 나의 개인적인 배경을 이야기할 필요성을 느낀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부 졸업 때까지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시설아동들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옆에서 지켜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로 전공을 정한 이후 나의 주된 관심 대상은 시설아동들이었으며 지금도 약하게나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 내내 시설아동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였지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박사학위논문의 대상은 입양가족들로 전환되었다. 2002년 여름에 국내입양가족들의 자조모임이었던 한국입양홍보회를 통해 처음으로 입양가족들을 만난 이후 1년여 기간에 현장연구를 진행하여 2003년 8월에 ‘공개입양 가족의 적응과정’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고, 이후 한국입양홍보회와 그에 속한 입양가족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2005년에는 입양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2006년부터는 입양아동들의 발달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20년 장기 종단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입양가족들의 적응수준과 입양과 관련된 경험들을 탐구하는 질적연구들을 병행하고 있다. 2006년에는 입양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를 계기로 입양실무자들이 경험하는 입양실무의 의미를 연구한 적이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해외입양지원단체인 InKAS가 수행하는 해외입양인 실태와 욕구조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나는 입양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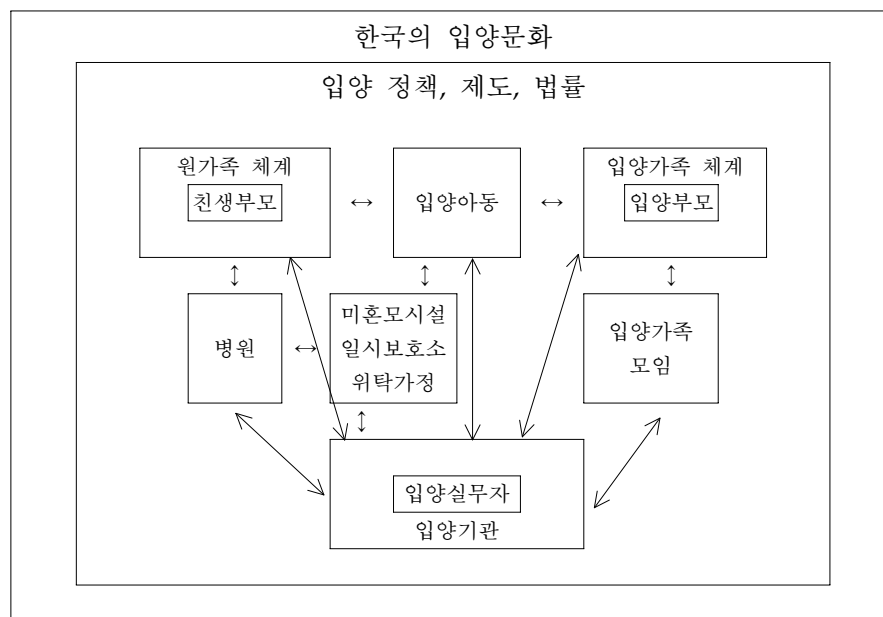
다른 한편으로, 나는 2007년 1월말에 입양부모가 되었다. 왜 입양을 하게 되었는지는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것 같다. 사회복지학자 그리고 입양연구자로서 당연한(?) 행로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가치관 때문일 수도 있고, 둘째가 있었으면 하는 소망의 결과일 수도 있다. 동기가 무엇이든 입양부모가 되면서 나는 입양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게 되었다. 때마침 2007년 1월부터 입양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실행되면서, 입양수수료를 면제받게 되었고,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도 받고 있으며, 아이가 아플 때마다 의료급여의 고마움을 실감하고 있다. 박사학위논문을 쓴 이후에는 입양가족캠프의 강사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다가 올해부터는 평범한 입양부모로 캠프의 유익함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나는 이 글을 쓰고 있다.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잘 알고 있는 것과 대충 아는 것, 모르는 것을 어느 정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할 만한 것은 없으며, 위에서 제시한 이슈와 주제들은 대충 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르고 있다. 나는 미혼부모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해본 경험이 없으므로 이들의 생활과 관점에 대해서는 일반인들과 다를 것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즉, 미혼모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편견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어쩌면 나의 이런 상태는 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입양부모와 입양부모, 입양기관과 실무자, 정책당국자들의 목소리는 사회에서 널리 퍼지고 있지만 친생부모인 미혼모들의 목소리는 좀처럼 듣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기획, 진행하고 있는 미혼모 연구들은 매우 의미가 있고 높은 가치를 가진 시도로 생각된다. 연구원의 각종 연구들이 일반 사회구성원들과 정책당국자들로 하여금 미혼모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한 지원책을 개발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나의 발표와 이 글이 이 연구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본론으로 들어가하고자 한다.

2. 국내입양과 관련된 환경 변화¹⁾

환경 변화를 기술하기 전에 국내입양의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입양실무자는 입양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친생부모(와 원가족 체계), 입양아동, 입양부모(와 입양가족 체계)라는 입양의 세 당사자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산부인과 병의원,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소, 위탁가정, 입양가족모임 등과도 상호작용을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입양의 세 당사자들과 나누는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주체들은 입양 정책과 제도, 법률과 상호작용하며, 그것은 다시 한국의 입양문화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림 1> 입양실무의 맥락

1) 입양대상아동의 감소와 예비입양부모의 증가

먼저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입양대상 아동은 감소하는 반면에 입양을 하려는 국내 예비입양부모들은 증가하고 있다. 입양실무자들은 입양대상 아동 감소의 원인을 낙태의 증가와 출산 후 양육하려는 미혼부모의 증가에서 찾고 있었다.

1) 이 절은 “권지성·김진숙·정정호. 2007. 국내입양실무자들이 경험한 입양실무의 의미. 사회복지연구, 32, 207-235.”에서 옮겨 놓은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입양기관과 실무자들에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입양대상 아동을 확보하려는 입양기관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 입양기관들은 나름의 홍보전략들을 개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 원인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입양부모의 증가는 입양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 개선과 정부의 정책 변화의 영향과 함께 직접적으로는 불임부부의 증가와 유자녀 입양의 증가, 연장아 입양의 증가, 형제입양(2명 이상의 자녀를 원하는)이 증가하는 추세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입양에 대한 상담 전화가 주로 오는 시기도 일정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즉, 1-2월에는 문의 전화가 늘어나고 7-8월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는 연말연시의 감정적 측면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추측에 불과하고 정확한 이유는 알기 어렵다.

2) 입양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입양실무자들은 입양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입양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입양가족을 대할 때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나름대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입양에 대해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며 입양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물론 아직도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편견을 유지하는 사람도 많다. 심지어 입양기관에 전화를 해서 ‘아이를 팔아먹는 XX’ 등의 욕설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입양부모들도 입양 후 주위의 편견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로 인해 이사를 가는 등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1차 입양시에는 공개입양을 했던 부모들도 2차 입양시에는 비밀입양을 선택하기도 한다. 입양실무자들은 지금을 이러한 변화의 ‘과도기’라고 불렀다.

3) 정부의 입양 정책 변화

한편,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과 함께 정부의 입양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국내입양 우선 정책을 기반으로 꾸준히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해 왔다. 입양실무자들은 이러한 변화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으로 생각하거나 실무에 어려움을 주기는 하지만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입양실무자들은 현실과 다른 정부 지침에 대한 불만도 가지고 있었다. 2006년 초 어느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이 입양 특집 보도를 하면서 미혼모 출산 후 너무 일찍 입양을 보낸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내보낸 후, 정부는 입양기관에 의뢰된 아동을 1개월 간 배치를 유

예한 뒤 입양시키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혼모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미혼모와 아기를 돌볼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현재 미혼모 시설의 정원 등 인프라 측면에서 전혀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되기 직전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입양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 정책들은 입양대상아동 발생 후 6개월간 국내입양부모를 먼저 찾고 그 뒤에 해외입양을 허용하는 방침, 독신가정 입양 허용, 입양아동-입양부모간 60세 이상 나이차 허용, 입양알선비 지원 등이다. 연구에 참여한 입양실무자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는데 물론 기여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걱정하고 있었다.

4) 입양기관

이러한 상황 변화에 대해 입양기관들은 나름대로의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변화의 흐름에 맞춰가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특히 입양대상 아동의 감소로 인한 경쟁의 심화는 대부분의 입양기관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었는데, 입양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실무자들에게 넘기는 경향을 보였다. 즉, 입양실무자들에게 입양 실적을 올리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다. 어떤 기관에서는 노골적인 형태로, 어떤 기관에서는 암묵적인 형태로 이러한 압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무자로서는 이러한 압력이 주어진다고 해서 마땅히 대처할 방법도 없었다.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중에 대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일텐데, 이는 실무자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한편, 입양기관들은 저마다 다른 조직구조와 역할분담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행정적으로 입양기관은 입양전문기관과 입양지정기관으로 나누어져 있다(문헌검토 참고). 이들 기관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많지만 미혼모시설이나 영아시설, 일시보호소 등과 붙어있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시설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양대상 아동을 ‘확보’하기 쉽기 때문에 병원 방문 등과 같은 실적을 올리기 위한 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방상당소를 가지고 있는 홀트와 동방, 대한의 경우에는 본사와 지방상당소 간의 관계에 차이가 있었다. 어떤 기관은 중앙집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입양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일단 본사로 ‘후송’한 다음에 본사에서 절차를 진행하여 상당히 많은 업무들이 중앙과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기관은 완전히 분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지방상당소가 모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직구조는 입양실무자들의 실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편, 특정 입양지정기관은 연장이 중심의 입양을 하기 때문에 아동복지시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었다.

3. 국내입양 정책과 실무, 연구의 현황

1) 국내입양 정책

여기에서는 국내입양 정책의 현황을 살펴본다. 먼저 정부의 정책 기조를 살펴보고, 이어서 현행 국내입양 지원 정책들을 검토할 것이다.

(1) 정책 기조

입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는 ‘국내입양 우선, 해외입양 억제’로 요약할 수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표한 『2008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안내에서는 입양 사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가정위탁·입양 등 가정보호 지원
-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하며 국외입양을 차선택으로 추진
- 입양가정 및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국내입양 활성화
- 혈연중심의 가족문화, 비밀입양위주 입양문화 개선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2) 국내입양 지원 정책

이러한 방향으로 입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국내입양 지원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먼저 국내입양 가족 지원제도로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입양수수료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아동 의료급여 실시, 입양된 장애아동에 대해 무료진료를 들 수 있다. 또한 입양기관 운영지원, 입양정보센터 운영,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입양가족단체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명시를 통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입양의 날 행사를 하도록 하였다. 여기에 덧붙여서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독신자도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연령 차이를 6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자녀의 수 제한 규정은 폐지하였다.

2) 국내입양 실무

여기에서는 입양기관의 국내입양 실무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권지성 외(2007)의 연구에서 입양실무자들은 다음과 같은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친생부모 그 중에서도 미혼모들과 상담하는 일이다. 미혼모들이 직접 연락하여 상담하거나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산부인과 병의원의 연락을 받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는 이미 입양을 결심한 이후이기 때문에 사례를 접수하고 입양대상아동을 데려오게 된다.

둘째, 입양을 원하는 예비입양부모들이나 입양한 부모들을 만나 상담하는 일이다. 기본적인 신청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뒤에 부모와 가정환경에 대한 사정을 하고 욕구를 파악하게 된다.

셋째, 입양 아동-부모 매칭 업무로서 입양부모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해당 부모와 가정에 적합한 아동을 찾아 연결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입양실무자들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넷째, 위에서 살펴본 업무들과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고 재정을 관리하는 등의 행정업무들이 있다. 다른 사회복지현장들처럼 직접 클라이언트들을 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보다 행정 업무에 드는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다섯째, 홍보와 행사 등 기타 업무들이 있다. 산부인과나 조산원 등을 방문하여 기관에 대한 홍보 자료를 제시하고 입양대상아동이 발생했을 때 연락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또한 입양의 날 등 중요한 시기에 캠페인을 실행하게 된다.

여섯째, 일부 입양기관들은 미혼모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입양기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혼모 시설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부족했던 미혼모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입양대상아동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3) 국내입양 연구

국내입양을 주제로 실행한 연구들을 대상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양의 세 당사자들과 입양가족에 대한 연구들을 먼저 검토하고, 입양실무자, 입양정책과 제도, 일반인의 인식에 대한 연구들을 이어서 살펴볼 것이다.

(1) 입양부모 연구

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입양부모됨의 경험을 탐구한 질적 연구와 입양부모의 적응수준 등을 분석한 양적 연구들이 있다. 전자의 경우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입양부모의 관점에서 입양부모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적응수준과 관련 변수들을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2) 입양아동 연구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입양아동발달에 대한 연구와 입양됨의 의미 연구가 있다. 입양가족자조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는 2006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입양아동발달에 대한 20년 장기 종단연구를 실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를 병행하고 있는데, 2007년에 ‘입양아동이 경험한 입양됨의 의미’라는 연구를 수행하여 2008년에 학술지를 통해 결과물을 발표하였다. 전자의 경우 자아, 인지, 정서, 문제행동, 사회성 영역으로 구분하여 입양아동의 발달수준을 측정, 분석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입양아동의 관점에서 입양되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자 시도하였다.

(3) 입양가족 연구

입양가족 연구는 입양가족의 적응 양상을 파악하려는 연구와 입양가족의 적응과정을 탐구한 연구가 있다. 전자의 경우 일반적인 가족기능 척도들을 활용하여 입양가족의 기능수준을 측정하고 분석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문화기술지 접근을 통해 입양가족의 적응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4) 친생부모(미혼모) 연구

미혼모에 대한 연구는 미혼모의 입양결정 요인을 파악하려는 연구와 미혼모 경험을 탐구한 연구가 있다. 미혼모들은 입양의 다른 당사자들에 비해 연구가 덜 이루어진 대상집단이다.

(5) 입양실무자 연구

입양실무자에 대한 연구는 ‘국내입양실무자들이 경험한 입양실무의 의미’ 연구가 유일한 것이다. 입양실무자들의 관점에서 국내입양과 관련된 환경변화를 이해하고, 입양실무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탐구하였으며, 이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6) 입양 정책과 제도 연구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대부분 최근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 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입양 정책과 제도, 법률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며, 문헌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7) 입양에 대한 사회 인식 연구

입양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특수대학원 논문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은 방법론상의 문제점들 외에도 일부 지역에 한정되거나 연구대상자들이 제한되는 한계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는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입양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 조사’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와 선행연구들을 비교하면,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 연구 외에도 독신자 입양에 대한 일반인과 입양관계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도 존재한다.

4. 국내입양 정책과 실무, 연구의 방향

여기에서는 앞으로 국내입양 정책과 실무, 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지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들은 모두 나의 이론적, 실천적, 개인적 경험을 배경으로 나온 것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국내입양 정책의 방향

국내입양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가까운 기한 내에 해외입양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입양 관련 법률들을 개정하는 것과 국내입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1) 전제: 해외입양 폐지 - 해외입양인 지원사업 확대

해외입양은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 필요성에 대해 이 글에서 다룰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외입양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즉, 국내에서 발생하는 입양대상아동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입양부모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장애아동과 연장아동, 형제를 수용할 수 있는 예비입양부모들을 확보해야 한다. 최근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요구와 입양아동의 욕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입양부

모와 입양아동을 연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예비입양부모들과 잠재적인 입양부모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일반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정부 차원의 홍보와 대중 교육 활동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2) 입양 관련 법률 개정

입양 정책과 제도, 서비스가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입양과 관련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입양정책을 지지하며, 입양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이 법률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입양과 관련되어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3) 국내입양 지원 확대

현행 국내입양 지원제도를 유지하는 상태를 전제로, 향후 이러한 제도들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내 생각에는 국내에 있는 입양기관들을 통합하여 입양 관련 전달체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단일화된 입양기관의 운영비는 전액 국가가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합 이후 잉여하게 될 전문인력들은 입양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참여하면 좋을 것이다. 한편 그동안 공개입양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공개입양을 하겠다는 입양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도와 공개입양 절차와 방법을 가르쳐주고 지원해 줄만한 인력은 부족한 상태다. 공개입양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면서 이러한 개입을 실행할 전문 인력이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내입양 실무의 방향

국내입양 실무의 방향은 입양의 세 당사자들에 대한 서비스 확대와 일반 사회 인식 개선 활동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동안 입양 이후에는 연락이 두절되어 왔던,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 입양아동의 발달과 함께 공개 이후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입양부모들이 입양자녀를 잘 양육하고 공개 이후 자녀가 적응해가는 과정을 도울 수 있도록 입양기관 종사자들이 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입양홍보회에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편견교육을 실시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듣고 있다. 장기적으로 이 교육사업은 입양기관이 실행

하는 서비스 중 하나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반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캠페인은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공개입양과 비밀입양에 대한 논쟁은 꽤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공개입양이 주류를 이루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입양실무자들은 이들 공개입양 아동과 가족들을 돕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해 가야 할 것이다.

3) 국내입양 연구의 방향

(1) 입양부모 연구 이슈

입양부모와 관련되어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이슈는 아동 양육방법과 공개입양의 절차와 방법, 입양자녀의 정체성 형성, 특수육구아동(연장아, 장애아, 형제)의 양육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으므로, 앞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 입양아동 연구 이슈

입양아동과 관련된 연구 이슈로는 상실과 애도, 뿌리 찾기, 정체성 형성, 사회 적응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입양아동들이 아동기 이후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탐구하는 일이 급하다.

(3) 입양가족 연구 이슈

입양가족과 관련된 연구 이슈들에는 유대와 애착, 공개입양, 입양가족으로서 살아가기, 특수육구 아동 입양으로 인한 가족역동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입양부모 자격 조건 조정과 관련된 이슈들이 입양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친생부모 연구 이슈

미혼모가 대부분인 친생부모에 대한 연구는 향후 양적, 질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친생부모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이들의 경험을 탐구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사회에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양육과 입양 사이에서 선택하는 과정과 그 요인들에 대한 탐구도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잘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균형을 이루며 전개될 필요가 있다.

(5) 입양실무 연구 이슈

입양실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입양실무자들의 실무경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는 한편, 앞으로 입양아동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개입하는 과정과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양사실이 공개된 이후 입양아동과 입양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들을 다양한 이론과 모델을 활용하여 해결하고 이를 분석하여 서비스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입양 정책과 제도 연구 이슈

해외입양을 폐지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한다는 정책 기본방향이 세워지면, 이후 입양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하는 논문들이 필요하고 법률의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또한 입양 정책과 제도의 변화가 입양 당사자들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필요도 있다.

(7) 입양에 대한 사회 인식 연구

입양 문화의 양상과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양과 입양 당사자, 입양제도 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로 서베이를 통해 양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입양이슈들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입양아동과 부모의 연령 차이를 조정하거나 자녀의 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을 탐구하여 사회의 인식 변화를 포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새로 여는 글

지금까지 입양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입양 정책, 실무, 연구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나는 이야기를 닫지 않고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어 보고자 한다. 이것은 입양 연구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혼모 연구와도 관련된 것이라 생각된다.

첫째, 향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통합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아동이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다양한 서비스 기관으로부터 각자 서비스나 보호를 받게 된다. 즉, 서비스가 파편화되어 있는 것이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입양기관, 아동보호전

문기관, 쉼터, 미혼모시설, 모부자복지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은 별도의 전달체계로 작동하고 있으며, 아동의 상황이 변화되더라도 기존의 서비스나 보호형태를 유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사례관리 서비스 체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입양기관들이 하나의 전달체계로 통합되면 아동복지센터나 가족복지센터 등의 형태로 아동복지 전달체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방적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사회문제에 대한 개입은 사후대책보다 예방책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아동복지와 가족복지 서비스도 사후대책보다 예방적 서비스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정책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시설이나 입양, 가정위탁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발생 이후에 개입하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기보다 빈곤가정이나 이혼가정, 재혼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자 가정에 개입하거나 지원하여 더 이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입양 당사자들에게 접근할 때 강점관점, 임파워먼트 접근, 레질리언스 개념, 당사자주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나는 공개입양가족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박사학위논문)에서 공개입양가족들이 도전을 통해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가며 환경을 변화시키는 양상을 발견한 바 있다. 이들은 입양이전부터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적극적으로 그러한 어려움들에 대처하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성장해갈 수 있었고, 입양 문화를 바꾸어 갈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입양 환경의 변화 중 상당 부분은 이들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나는 곧 성인이 될 입양아동들과 친생부모인 미혼모들에게도 이러한 관점을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혼모 정책과 실무, 연구들이 당사자인 미혼모들에 의해 기획되고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들에게는 그만한 역량이 존재한다. 입양부모들이 그러했던 것처럼...